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4

‘서브-3’ 8명... 20명이 풀코스 도전

정읍시 마라톤연합회

“회원간 친목도모와 마라톤 인구의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 마라톤연합회(회장 김관섭·이하 연합회) 회원들이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불바람을 가르며 힘찬 질주를 한다. 이번 대회에는 풀코스 20명, 하프코스 30명, 10km 5명 등 58명이 참가한다.

연합회는 지난 2009년 12월 정읍마라톤, 정읍시청 마라톤, 내장산 마라톤, 정읍사람 마라톤 등 지역 4개 클럽이 의기투합해 창립했다. 지역 마라토너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연합회원 170여명의 회원들은 3·1

하프 30명·10km 5명 대거 출전

10쌍 함께 달리며 부부에 자랑

“정읍 마라톤의 저력 보여주겠다”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연간 10개대회에 참가해 평소 연마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김상기 회원 등 몇몇 회원은 연중 40여개 대회에 참가해 건강을 다지고 있다.

김상기·김성익 씨는 연합회 회원 가운데 최고기록인 2시간 30분대의 실력을 갖췄다. 이수대(53) 회원은 풀코스를 110회나 완주한 기록을 세웠다. 회원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펼쳐 풀코스 ‘서브-3’ 주자가 8명이나

된다. 특히 1~4분가량 아슬아슬하게 ‘서브-3’ 기록에 못 미친 회원들도 이번 대회에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나름세웠다. 정읍시 한철 홍보대사인 안영산 회원은 150여 차례 한철을 했으며, 각종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한철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지역 동호인만으로 선수를 구성해 매년 상위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 연합회는 10쌍의 부부들이 함께 마라톤을 하고 있어 여타 종목 클럽보다 부부가 단독해지고, 체력도 향상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짧은 코스를 뺀 사람이 나중에 들어오는 배우자를 마중 나가 챙겨주는 정겨운 모습을 보여줘 부러움을 산다.



정읍시 마라톤연합회(회장 김관섭) 회원 58명이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마라톤 저변확대와 회원간 친목도모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이수대 회원(오른쪽에서 5번째)의 풀코스 100회 완주를 축하해 주고 있는 회원들.

소방관인 이승연 사무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체력관리를 위해 마라톤을 시작했다.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이라며 “무리하지 않으면 건강에 좋은 운동이다”고 말했다.

김관섭(57) 회장은 울트라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해 눈길을 끈다. 김 회장은 ▲해남땅끝~강원도 고성(622km) 종단(134

시간) ▲부산 태종대~임진각(537km) 종단 구간(109시간) ▲강화도~경포대(308km) 횡단(48시간) 등 국토종단 울트라마라톤 코스를 3차례나 완주했다. 김 회장은 “국토를 종단하는 울트라 마라톤을 하며 지나간 아픔과 세월을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해남 땅끝에서 신의주까지 1100km를 달려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5월에 ‘정읍시 마라톤연합회장배 마라톤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대회는 5월 26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정읍=박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양현종, 니혼햄전 4이닝 3K 무실점

KIA, 연습경기 3피안타 후투 볼펜 난조로 2-3 역전패

‘호랑이 군단’의 육석 거리가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가 14일 나고구장에서 일본 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티스와 연습경기를 갖고 본격적인 주전경쟁에 돌입했다.

선발로 등판한 양현종이 최고 150km의 직구를 앞세워 4이닝 무실점 후투를 했지만 볼펜진의 난조로 경기는 2-3 KIA의 역전패로 끝났다.

지난 9일 일본 오키나와에 2차 캠프를 마련한 뒤 치러진 첫 연습경기, 미국 애리조나에서의 담금질을 끝내고 컨디션을 조절해 왔던 KIA는 니혼햄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일본·한국 프로팀과 총 14차례 대결을 갖고 ‘진짜’ 실력을 평가한다.

니혼햄과의 첫 경기는 좌완 테스트 무대였다.

선동열 감독은 일찌감치 선발로 낙점한 양현종을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올렸고 이후 임준섭·이대환·진해수·박경태를 내세워 경기를 풀어갔다. 위기상황에 긴급 투입된 이대환을 제외하고는 모두 좌완 투수들이었다.

KIA의 약점으로 꼽히는 볼펜, 그 중에서도 특히 아킬레스건인 좌완들을 가장 먼저 출격시켜 전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양현종의 상승세는 계속됐지만 좌완 볼펜진은 100%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

앞서 미국에서 진행된 NC와의 연습경기에서 148km를 뿌렸던 양현종은 니혼햄을 상대로는 150km의 강속구를 뿌리며 위력을 발휘했다.

양현종은 1회 첫 타자 나시카와를 삼진으로 잡아낸 뒤 연속 안타를 허용하긴 했지만 실점없이 위기를 넘겼다. 2회 볼넷으로 출발했지만 역시 볼타로 세 타자를 돌려세우는 등 4이닝 3피안타 1사구 3탈삼진 무실점의 기록을 남겼다.

양현종은 2-0으로 앞선 5회 임준섭에게 마운드를 돌려줬지만 볼펜의 힘이 떨어졌다.

팔꿈치 수술때문에 첫 스프링 캠프에 나선 2년차 임준섭이 5회를 피안타 없이 마무리했지만 6회 1사에서 제구가 흔들리면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투수 윤석민이 14일 오전 대만 도류구장에서 열린 전지훈련에서 볼펜 투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타를 당했다. 5타자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2-2.

12년차 베테랑 이대환이 투입돼 급한 불은 껐지만 바뀐 투수 진해수가 역전 홈런포를 허용했다. 8회 등판한 진해수가 땅볼과 삼진으로 투아웃을 잡아냈지만 오오히에게 던진 공이 가운데 몰리면서 우측 담장을 넘어가고 말았다.

마무리로 투입된 박경태도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완벽한 마무리는 아니었다. 내야 안타로 출루한 스기야가 연달아 도루까지 성공하며 무사 2루, 1루수 앞 땅볼로 원아웃을 잡았으나 그 사이 주자가 3루까지 질주했다. 1사구투에서 무라타의 스쿼즈 번트가 포수 파울 플라어로 둔갑하면서 투아웃, 1루수 앞 땅볼로 마지막 카운트를 잡아내며 이닝이 마무리됐다.

좌완 실험에 나선 KIA는 16일 야쿠르트를 상대로 두 번째 연습경기를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공 좋다” 에이스 윤석민 첫 볼펜 투구

50개 전력투구 페이스 조절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대표팀의 에이스 윤석민(KIA·27)이 첫 볼펜 투구를 마쳤다.

윤석민은 14일 대만 도류시 도류구장 볼펜에 올라 50개 안팎의 공을 던졌다. 그는 양상문 수석코치, 한용덕 투수코치, 김동수 배터리코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50개 내외의 공을 전력투구하며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양상문 수석코치는 윤석민의 투구가 끝날 때마다 “공 좋다”, “나이스 볼”이라는 추임새를 넣으며 ‘기 살리기’에 나섰다.

2009년 제2회 WBC에서 4경기에 나와 2승

에 평균자책점 1.13의 완봉투구로 준우승을 이끈 윤석민은 이번에도 마운드의 중심축이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김광현(SK)의 낙마로 오히려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윤석민의 후투가 뒷받침돼야 류종일 감독의 출사표대로 사상 첫 우승을 노릴 수 있다.

류 감독은 “일단 불의 힘은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라 그런지 공을 놓는 지점이 앞에 형성되지 않아 힘이 높게 제구됐다”고 지적했다.

대표팀 투수 최고참인 서재응(KIA·36)도 윤석민 바로 옆에서 25개를 전력투구했다.

/연합뉴스

벨런타인데이 ‘비극’

‘의족 스프린터’ 피스토리우스

여친 강도로 오인해 총기 살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6)가 14일(현지 시간) 여자 친구에게 총격을 가해 죽자 케 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일간지 빌트, 뉴스통신 사파 등에 따르면 피스토리우스는 이날 오전 일찍 수도 프리토리아 자택에서 여자 친구에게 4발의 총격을 가했으며 그의 여자 친구는 현장에서 숨졌다.

빌트는 피스토리우스가 여자 친구를 강도로 오인해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피스토리우스는 이에 따라 경찰에 체포돼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다.

이와관련, 영국의 인터넷신문 ‘미러’는 “사망한 여성은 지난해 11월부터 피스토리우스와 교제했던 남성 잡지 FHM 모델 출신 리바 스티븐슨(30)로 그녀는 벨런타인데이를 맞아 피스토리우스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 그의 집을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 두 다리가 절단된 피스토리우스는 칼날처럼 생긴 탄소 섬유 재질의 의족을 달고 경기에 나서 ‘블레이드 러너’란 애칭을 지닌 선수다. 그는 지난해 장애인으로서 처음으로 런던 올림픽에 출전, 비장애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뤘다. 그는 이어 열린 장애인올림픽에서



지난해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연합뉴스

는 육상 400m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피스토리우스는 지난 2011년 대구에서 열린 육상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KBO, 프로야구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오픈

페이스북을 통해 프로야구 소식을 접할 수 있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선수단 소집에 맞춰 KBO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오픈했다.

KBO 공식 페이지 주소는 http://www.facebook.com/kbo1982이며, 페이스북 검색창에 ‘KBO’를 검색해 확인할 수도 있다.

공식 페이지에서는 WBC 기간 동안 대표팀의 일정과 경기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며 훈련 및 경기 모습 등을 사진 및 영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프로야구 정규시즌 중에는 경기 정보, 개인기록과 경기 하이라이트, 명장면 등의 동영상도 제공된다. 올스타전, 포스트시즌, 신인 드래프트, 골든글러브 등 KBO 행사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2013 WBC 대표팀 응원 메시지 전달’이벤트가 진행된다. 기간은 27일까지이며 KBO 다이얼리 20권과 WBC 공인구 10개가 경품으로 증정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후원 : 남해고속

흑산도상리봉 등반및 자유관광

- 출발일** 당일(찍수날 출발)
- 여행비** 주 중 88,000원 주말 98,000원
-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흑산도 왕복쾌속선 흑산도 중식 제공
-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

홍도 / 흑산도 특가 이벤트

- 출발일** 3월1일~2일(1박2일)
- 여행비** 주 중 158,000원
-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 흑산도, 홍도 왕복쾌속선/ 숙박비 (5인이상 합숙)/ 식사비(4식)/ 홍도유람선/ 여행자보험
-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